

● 국내 동정

**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보화 우선협상 대상자에 '포스데이타'**

포스데이타(대표 유병창)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(KINS)이 추진하는 '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'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월 14일(목) 밝혔다.

이 사업은 최근 KINS가 발표한 'First KINS 2010 혁신비전'에 따라 선진 IT시스템 도입으로 생산성 및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고, 궁극적으로 경영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.

포스데이타는 KINS와 이달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계약을 마무리 짓고, 2008년 6월까지 원자력시설 및 방사선안전규제관리, 연구과제관리 등 KINS의 3대 핵심사업과 관련된 안전규제시스템은

물론 경영관리, 정보자원관리시스템과 네트워크, 보안 등 기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.

KINS는 이번 사업을 통해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, 방사선에 의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또 성과 기반의 경영관리체제를 마련하고, 민원처리 및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국민 정보서비스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.

-전자신문, 2006.12.15

**'진단방사선과', '영상의학과' 로 변경**

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(CT), X선 등 기계를 통해 판독과 진단을 하는 진단방사선과가 최근 영상의학과로 바뀌었다. 진단방사선과는 60년 동안 병원에서 사용돼 일반인에게도 친숙했던 이름이지만 이젠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된 것이다.

대한영상의학회는 최근 진단방사선과 개명 작업이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을 받음에 따라 숙원 사업이었던 '진단방사선과'에서 '영상의학과'로의 개명이 완료됐다고 10일 밝혔다.

영상의학회의 개명 작업은 2002년 시작돼 3년 만에 이뤄진 결실이다. 영상의학과는 오랜 법 개정 지연 기간에 대외 활동 시 대한영상의학회라는 명칭을 사

용해 왔지만, 병원에서는 진단방사선과를 주로 사용해 일반인에게 혼란이 있었다. 이번 법 개정 통과를 계기로 병원과 학회에서 모두 '영상의학과'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.

대한영상의학회는 과거 진단방사선과가 '방사선'이라는 명칭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진단 방법이 과거의 방사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대기술 발전에 따라 영상초음파촬영, 자기공명영상(MRI) 등 다양하게 개발돼 왔다는 점을 개명 이유로 꼽았다.

-동아일보, 2006.12.11